

30가지 성격으로 어리석은 인간 본성 탐구

성격의 유형들

테오프라스토스 지음·김재홍 옮김

“인간 성격 연구의 출발점이 된 최초의 고전”이라 불리는 책이 있다. 책은 30가지 성격 유형으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아리스토텔레스 사후 학파를 계승했던 철학자 테오프라스토스가 저자다. 그의 책 ‘성격의 유형들’은 역설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과 친애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였다.

전남대 사회통합지원센터 부센터장을 지낸 김재홍 정암학원 연구원이 번역했다. 그동안 김 박사는 ‘정치학’, ‘관상학’, ‘변증론’ 등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저작을 꾸준히 번역해왔다. 그 과정에서 테오프라스토스의 ‘성격의 유형들’을 언급한 바 있다. 김 박사는 이번엔 테오프라스토스의 희망어 판전을 기본으로 지금까지 전승된 여러 판본, 서양 연구자들의 해석을 참고해 파손된 원문의 맥락과 의미를 밝혀냈다.

원래 테오프라스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각별한 사이였다고 한다. ‘학문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의 테오프라스토스의 원래 이름은 ‘튀르타모스’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튀르타모스라는 어감이 나쁘다고 해, ‘신처럼 이야기한다’는 의미의 테오프라스토스로 바꾸었다.

참고로 이번 ‘성격의 유형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논의한 윤리적 덕목과도 연관된다.

‘성격의 유형들’에서 언급하는 성격은 그다지 좋은 유형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



이면 누구나 일정 부분 그런 면들을 지니고 있어 수긍할 만하다.

일례로 이렇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역겨운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 허풍선이, 비방꾼, 악당의 친구 등 성격 유형도 가지가지다. 각각 유형에 따른 행위의 사례는 시공을 초월해 오늘날에도 쉽게 볼 수 있다.

먼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기술은 이렇다. “이의를 위해서 나쁜 평판을 떨치려는 것”이며 “채권자, 이웃사람, 상인, 손님 등의 이득을 빼앗고 그런 다음 철면피한 농짓거리를 던져대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사회적이지 못하고 협력적이지 못하며 무뚝뚝한 불평가”이다. 또한 제멋대로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다. 나아가 “거리에서 발가락을 채였을 때에는 그는 돌부리에 대고 저주 퍼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또 어떤가. 테오프라스토스는 그런 사람은 친구가 보내 온 음식을 가져온 사람에게 “만찬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형편없는 수프와 포도주를 보낸 것”이라 불평한다.

책에서 언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지탄을 면치 못한다. 또한 이러한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매몰되고 1800년 후인 1879년에 발굴된 ‘100주년의 집’에서 나온 헤르마프로디토스 신. 두 신의 이름인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가 결합해서 ‘헤르마프로디토스’란 이름이 생겼다. <쌔네파커스 제공>

성격 유형들은 고대서양사회에서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문학작품이나 예술 작품에서도 반복, 변주될 만큼 강렬한 특징을 지닌다.

김 박사는 해제에서 “테오프라스토스는 이 작품을 통해 동료 시민들의 도덕적, 감

정적, 지적인 성격들의 왜곡된 모습을 지적함으로써 공동체의 ‘더불어 사는 삶’에서 필요한 인간 상호 간에 성립하는 ‘친애’의 덕을 되살려내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쌔네파커스·2만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윤봉길 평전=독립운동사 연구자들조차 가장 빛나는 의열투쟁인 윤봉길 상하이 거사가 윤 의사의 주체적인 의거였다는 사실과 관련한 여러 자료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실정이다. 지은이 이태복씨는 이런 김구 측근으로부터 나온 ‘프레임’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바로잡고 싶었기에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동녘·1만6000원>
▲나폴레옹을 물리친 퍼그=명사와 그들의 반려동물을 다뤘다. 18-19세기의 각종 문서와 책, 편지, 소송기록, 신문과 잡지를 뒤져 다양한 분야의 동물, 예술, 골동품, 패션, 미용, 페미니즘, 법률 등의 엉뚱하고 기이한 이야기들을 수집했다. 조제핀의 퍼그 ‘포춘’과 나폴레옹의 악연, 엘버트 왕자의 기품 있는 반려견 ‘이오스’ 등이 소개된다.

<스윙밴드·1만6000원>
▲여자 전쟁=영국 BBC 언론인 수 로이드 로버츠가 유일하게 펴낸 책 ‘여자 전쟁’은 여성인권 르포르타주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생생하며 성실하다. 성기 절제를 강요받는 여자들, 딸과 아들을 잃고 국가권력과 맞서는 여자들, 부당한 임금차별을 겪는 여자들 등 여성혐오에 응감하게 맞선 여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수 로이드 로버츠와 당사자들의 인터뷰는



현장감을 더한다. <클·2만원>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대부분 ‘노인’에 대해 ‘다른 여러 사항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노인이 처한 기초 수준의 생리적 요구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지녔다고 오해하곤 한다. 즉 노인을 디자인이나 다른 요소는 따질 겨를이 없는 중환자와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런 편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라고 주문한다. <부키·2만원>

‘0세~100세’ 100가지 장면을 통해 만나는 ‘인생’

100 인생 그림책

하이케 팔러·발레리오 비달리 펴냄 김서정 옮김

“살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작가 하이케 팔러는 초등학교생부터 아흔 살 할머니까지 다양한 이들을 만나 이렇게 물었다. 난민의 기족도 만나고 몰락한 동독의 기업가도 만나며 다양한 세대와 종교, 인종을 아우르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진 그는 이 답들을 기반으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다.

잡지 ‘차이트’ 편집자를 맡고 있는 작가 하이케 팔러와 이탈리아 일러스트레이터 발레리오 비달리가 펴낸 ‘100 인생 그



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100가지의 장면을 통해 만나는 ‘인생’이다. 섬세한 글과 감각적인 그림이 인상적인 그림책은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게 만든다. 작가는 갓 태어난 조카를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미라처럼 전에 돌돌 싸여서 침대에 누운 채 빛나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조카를 보며 작가는 그 앞에 앞으로 얼마나 기묘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한다.

어른이 되면 세상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큰산이나 보름달 사랑 같은, 많은 걸 당연

한 걸로 여기게 되는’ 시절이 올 것이고 ‘그런 것들의 위대함을 다시 볼 수 있으려면 새로운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삶이 흐르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입장’의 사람을 등장시킨다.

‘0세’에 등장하는 그림은 유모차에서 아이를 안아 올리는 엄마와 아빠의 뒷모습이다. ‘난생 처음 네가 웃었지. 널 보는 이는 마주 웃었고.’라는 글과 함께 실린 그림은 읽는 이들도 미소짓게 한다. 블레이드를 타고 다니는 그림에는 ‘벌써 엄마 아빠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12세)라는 글이 담기고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서 영원히 함께 있다고도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도 생각하는 20대를 거쳐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이 상대적이라는 것도 배운다(30대). ‘멋진 풍경을 보며 마시는 커피 환잔’ (53세), ‘한번도 안 껴고 자는 일’ (49세) 등 작은 일에 감사하는 중년을 넘어 ‘세상에 무심해져 달 한번 제대로 올려다보질 않는 시절’ (56세)을 건너고, ‘이제는 나이를 한 해 한 해 세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보내는 순간 순간을 세고 있는 때’ (81세)도 있다. 99세의 ‘마지막’은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라는 글과 함께 나비가 등장한다.

작가가 마음을 담아 써낸 한두줄의 문장을 그림으로 구현해낸 일러스트는 더없이 아름답고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내 나이의 페이지를 펼쳐보았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글과 그림에 오래도록 시선이 머문다. <사계절·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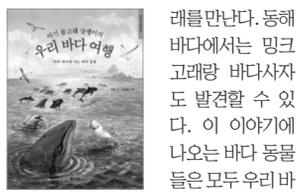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짜장면 나왔습니다=맛있는 짜장면을 배달하는 아저씨도, 주방에서 짜장면을 만들었을 아저씨도 누군가의 아빠일 것이다. 이들 아저씨는 바빠도 너무 바빠 보인다. 아저씨들의 딸과 아들들은 도대체 언제 아빠와 놀 수 있을까? 아빠와 놀고 싶은 아이는 주방에 들어가기로 마음 먹는다. <노란상상·1만3000원>

▲오늘은 칭찬 받고 싶은 날=로즈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루 종일 동분서주한다. 책 속에서는 칭찬 스티커 대신 ‘별’로 바뀌어 있지만, 선생님에게 칭찬 받고 싶은 아이의 마음만큼은 께겜 같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 로즈는 선생님한테 별을 받을 수 있을까? <리임·1만2000원>

▲우리 바다 여행=아기 돌고래 상괘이가 서해 바다, 남해 바다, 제주 바다, 동해 바다를 여행하며 만나는 여러 바다 동물들 이야기를 담았다. 서해 바다에서는 점박이물범과 철새들을 만나고, 제주 앞 바다에서는 힘차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



래를 만난다. 동해 바다에서는 밍크 고래랑 바다사자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다 동물들은 모두 우리 바다에서 살거나 자주 볼 수 있는 동물들이다. 상괘이를 따라 우리 바다를 여행하다 보면 흥미진진한 바닷속 세계를 마음껏 탐구해 볼 수 있다. <보라·1만5000원>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흙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대출 3억 3천만원 포함)
- 문의. 010-6834-7400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3627-8282